헤고픈 사람은 먹어야 합니다.
아픈 사람은 치료받아야 합니다.
어려움은 제때에 해워야 합니다

이것은 인종과 국가, 민족, 종교,
계급, 남녀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는 이 기본적인 권리마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이티에스는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각자가 가진 것을 내어놓아
서로 만나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밝은 미래인 어린이와 제3세계를 향해
큰 사랑을 나누어 주십시오.

✂ ---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97.12.12~99.12.11
광화문우체국승인
제2064호

사단법인 **한국제이티에스**
JOIN TOGETHER SOCIETY
서울시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799호
후원금접수 대표전화 02)3372-5045
1 1 0 - 6 0 7

제이티에스
JOIN TOGETHER SOCIETY

통권 13 호 1998년 8월 / 9월

국제기아 · 질병 · 문맹퇴치 민간기구
사단법인 **한국제이티에스**

북한에 사는 친구야!

우리 학교에서
북한에 보낼 헌 옷을 모았어
사천 꾸러미
짐차에 실어 여의도로 가서 더 모아
컨테이너에 실어 북한으로 보낸대

친구야 ! 미안해
새 옷이 아닌
우리들이 입다 남은
헌 옷을 보내서
남은 옷이라도 두둑이 껴 입고
시베리아 벌판에서 불어와
뼛속까지 시리게 따고드는 찬바람
맞서 이겨내야 해

이 추위 지난 뒤
네 마음과 내 마음을
하나로 모아
호랑이 어미 두 동강이 낸
얼어붙은 쇠창살을 녹이고
닫혀진 철천만 백성들
마음의 문, 활짝 열어
아루하도 빨리 만나자

그때 너와 나
똑같은 옷 입고
백두산에 올라
두 손 꼭 잡고
하늘보고 큰 소리로
만세 세 번 부르자

김영숙
김영숙님은 아동문학을 사랑하는 주부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에게 좋은 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실천하는 <이야기꾼>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표지해설:

지난 5월 라진 · 선봉시를 방문한 미국 JTS 상임이사 최경숙씨와 함께한 라진시 남산 유치원 아이들.

JTS는 전 세계의 기아 · 질병 · 문맹을 퇴치하기 위하여 1992년 인도 캘커타에서 메디칼 캠프(Medical Camp)를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한국, 미국, 중국, 인도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1997년 11월부터는 북한의 라진 · 선봉지역 어린이를 위한 직접 결연 활동을 하고 있다.

JTS 통권 13호
발행일 1998.8.15
발행인 및 편집인 법륜
발행처 (사)한국JTS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28번지 가회빌딩 2층 / TEL. (02)5810-581
Fax (02)5874-077
Web site : http://ns.jts.or.kr
E-mail : jts@jts.or.kr
나우누리 : go jts

글싣는 순서

2 여는 시
북한에 사는 친구야
4 현장르뽀
꽃 한송이가 생기를 찾아 꽃망울을 터뜨린 때
6 아름다운 수자타 아카데미를 간 이야기 네번째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떠난 여행
8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둥게스와리 소식
10 JTS 24시
북녘어린이에게 전달되는 우리들의 정성
12 기획
북녘어린이 결연사업의 평가와 향후전망
14 제언 1
북녘어린이 결연사업과 관련하여 JTS에 바라는 글
16 제언 2
가슴이 얼어버린 우리들에게
18 결연인의 목소리 1
내가 북녘동포돕기운동을 하는 이유
20 결연인의 목소리 2
통신공간에 통일의 빛을
21 결연단체 탐방 두번째
「나와 우리」를 방문하여
23 활동보고
이렇게 일했습니다
25 결연단체현황
26 광고
27 후원회원 가입신청서

꽃 한 송이가 생기를 찾아 꽃망울을 터뜨릴 때

이승헌 (한국 JTS 인도파견 봉사자)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제때에 배워야 합니다.'
'아픈 이들은 치료받아야 합니다'

JTS가 추구하고 구현하는 이념 중의 하나인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한 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나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던 이 세 가지 이념이 모두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병원 일을 하면서야 알게 된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병원에 오는 사람들 거의 모두가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부족 상태여서 아무리 가벼운 약이라도 이곳 사람들에게는 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 아프다고 약 주기가 걱정이 됩니다. 또한 못 먹고 못 사는 것은 그들이 교육을 받지 못해서 오는 무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모두가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얘기하기보다 '먼저 약부터 달라'고 하고 '어디가 아프냐'고 물으면 무조건 '몸이 아프다'고 하는 이곳 등게스와리 사람들.
처음에는 '무조건 약 달라'는 소리에 황당하여 '무슨 약?', '어디가 어떻게 아파요?' 하고 되물어 가며 약을 주었지만 지금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수준이며 또한 습관이지요. 매일 오전 오후 한 시간씩 병원 문을 열고 치료를 합니다. 하루에 평균 25명 정도 오지요.

요즘에는 우기라 기침환자랑 눈병환자, 발열환자가 주를 이룹니다. 어떤 날은 앞도 보지 못할 정도로 양쪽 눈에 눈곱과 고름이 꽉 낀 아이를 데리고 오는 아주머니, 피부병에 온몸이 고름투성이인 아이를 데리고 온 아주머니. 그들에게 '왜 이제야 데리고 왔느냐'는 질문에 '이 일 저 일 하다보니 시간이 없어 이제야 왔다'고 하더군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무조건 온몸이 아프다며 약 달라고 합니다. 어디가 어떻게 아프냐고 해도 그냥 온몸이 아프다고만 하죠. 어떻게 해야하나 난감할 때도 있습니다.

요즘은 하루가 무척 바쁘게 흘러갑니다. 매일 마을 유치원 두 군데를 방문하여 아이들의 건강상태와 질병을 체크하고, 간단한 치료를 그 자리에서 실시하거든요. 대부분이 계절병인 피부병, 눈병 등이며 귀 안이 곪은 중이염이 의외로 많습니다. 양쪽 귀에 고름이 꽉 차다못해 흐르지요. 얼마나 아플까… 하며 마음 한편으론 같이 아파합니다.

마을 유치원생들의 건강상태를 자료화해서, 질병별로 메디컬 캠프를 실시하고자 준비를 하는데 조급한 마음같이 일이 빨리 진행되지 않아 조급한 마음이 더해집니다. 어서 어서 준비해서 아이들을 빨리 치료해 주어야 하는데, 이일 저일 서로 겹쳐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9일날, 마을 메디컬 캠프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결핵환자, 부인병환자, 기타 일반환자로 나누어 실시하는 캠프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한가지 바쁜 일은 매일 결핵환자를 돌보는 일입니다. 지난번에 마을의 결핵환자를 모두 조사하여 가야의 병원으로 진찰을 받으러 갔습니다. 지프차 한대에 14명이나 되는 환자를 싣고 병원으로 향했지요. X-ray, 혈청 검사를 했는데 14명 중 결핵환자가 7명이나 됩니다.

JTS에서는 7명의 결핵환자와 검사결과 너무 허약해 등쪽 신경이 다 죽어버린 노인 한 분 등 모두 8명에게 매일 영양식과 약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환자들은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지급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모금운동을 할 때 '매월 10만원이면 결핵환자 한 명을 살릴 수 있다'고 말만 했는데 실제로 환자들에게 지급되는 약과 영양식은 하루에 일인당 2000원선 입니다. 그 돈이면 이곳에선 '죽음을 기다리는 병'처럼 알고있는 결핵환자를 살릴 수 있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약주고 음식을 지급하면서 그들이 건강해져 가는 모습을 볼 때는 보람과 흐뭇함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간혹 나를 화나게 하는 일들도 생깁니다. 결핵환자들은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약을 먹어야 하는데, 지난주에서는 두 명의 환자가 아무런 말도 없이 학교에 오지 않았더군요. 그래서 다른 환자에게 약을 전해달라고 한 후 오후에 그 집에 가봤더니 세상에 약이 자기에게 안 맞는 것 같다며 안 먹겠다는 겁니다. 약 복용후 배가 아프고 몸이 좀 아팠는가 봐요. 그런데 그 순간 "당신이 의사야?" "결핵환자는 약을 하루라도 빠지면 다시 시작해야되고 그렇게 되면 약도 자구 독한걸 써야하고 잘 낫지도 않는단 말야" 하며 환자를 몰아 붙였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모르겠다. 다른 약을 주면 먹지 이 약은 안 먹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갔더니 일단 약을 중단하고 일주일 후에 재검사를 해보자고 하더군요.

현재 7명 중 6명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완치가 힘들다고 합니다. 결핵환자에게 약 주랴, 음식 챙겨주랴, 하여튼 요즘은 결핵환자들을 챙기느라 꼼짝없이 하루종일 학교에만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나아져 가는 환자들을 보면 기분은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게 좋아진 '말디'를 보면 더욱 그런 마음이 많이 생기죠. 12살 소녀 '말디'는 한창 배우고 뛰어 놀 나이에 뼈마디만 앙상하게 남아있던 처음의 모습과는 달리 생기가 있어 보입니다. 시들어가던 꽃 한송이가 생기를 찾아 꽃망울을 터뜨릴 것만 같이 건강해진 '말디'가 궁금하시죠? 어떤 소녀인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예쁜 '말디'를 소개해 드릴께요.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떠난 여행”

인도는 그렇게 나에게 다가왔다.

하루에도 수만 명의 외국인이 찾는 캘커다 공항인데도 건물은 낡을 대로 낡았고, 수화물 찾는 곳은 시장바닥을 연상할 정도로 복잡했으며, 그 흔한 안내센터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우리를 따뜻하게(?) 맞는 것은 구걸하기 위해 몰려드는 거지들뿐이다. 이런 느낌은 하우라역에서는 더욱 심했다. 그래도 각종 여행 안내서에 인도의 관문으로 소개되고, 캘커타에서 인도 각지로 떠나는 모든 열차의 출발역인데 천장에서는 비가 새고, 바닥은 물과 흙이 범벅이 되어 질퍽하고 도대체 어디서 열차를 타는지, 몇 시에 출발하는지, 제때 떠나는지, 안내표시 하나 없고 의자도 없는 바닥에 열차를 탈 사람과 갈 데 없어 하릴없이 하루종일 누워 잠자는 사람들이 뒤섞여 그야말로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는 곳이다.

왜 인도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가? 기본적으로 못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은 그렇다 치자. 그러나 별로 돈을 들이지 않아도 가능한 대합실과 플랫폼을 분리하는 등의 승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일은 해야하지 않겠는가? 이런 하찮은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도 여행객들이 불편을 겪고 불평을 했을까? 이런 수많은 의문을 간직한 채 나의 인도 수자타아카데미 방문은 시작되었다.

불가촉천민 마을

그것은 진정 충격이었다. 20세기도 다 지나가고 내일 모레면 21세기가 되는데, 과학문명이 발달하여 전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되고 인류의 물질문명은 그 극에 달해 온갖 풍요와 편리함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런 마을이 아직도 지구상에 있단 말인가? 집은 단지 비바람을 피하기 위한 대피소일 뿐 집안과 집밖의 차이가 없다. 방도 따로 없고, 마루도 없고, 부엌도 따로 없이 그냥 흙바닥에서 먹고 잔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옷도 없으며, 신발도 안 신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야말로 문명과는 동떨어진 원시적인 삶을 그들은 살고 있다. 그래도 원시인들에게는 먹을 것과 깨끗한 물은 있었는데……. 온갖 더러운 것이 섞여 썩어가고 있는 우물을 보고 이 물을 마시고 병이 안 나면 이상한 일이란 생각이 들었다. 한 마을에 주민 수는 500~600여 명인데, 집은 30~40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한 집에, 그것도 다 쓰러져 가는 몇 평 안 되는 오막살이집에 적게는 10명 많으면 20명이 살아가는 셈이다. 수백, 수 천년 동안을 가난과 질병,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살아 왔을 그들을 생각하니 가슴 속 저 밑바닥으로부터 형용할 수 없는 연민과 분노, 그리고 답답함이 나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왔는가? 상황을 그렇게 만든 사회제도와 관습의 문제인가? 아니면 모든 걸 체념하고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그들의 잘못인가?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일행이 2대의 차에 나누어 타고 가야역을 출발하여 네이란자라 강을 건너 둥게스리 마을에 도착하자 전형적인 시골풍경이 펼쳐졌다. 가로수가 쭉 늘어선 비포장도로를 30분 정도 달리니 왼쪽에는 나무도 없는 바위산이 나타나고, 오른쪽으로는 숲과 들판 사이에 군데군데 다 쓰러져 가는 흙집들이 보이더니 그 사이로 하얀 벽에 녹색과 붉은 색이 멋지게 어울리는 지붕을 올린 사원이 보이고 바로 옆에 자주색 담으로 둘러싸인 학교 건물이 나타났다. 바로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수자타 아카데미였다. 학교에 들어서니 30여 명의 아이들이 운동장에 모여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노래도 하고, 율동도 하며 자리에 앉아 참선도 한다. 모두들 학교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것 같다. 비록 비쩍 마른 몸에 입은 옷이래야 누더기 천 조각 아니면 그저 알몸이지만 그래도 티없이 맑은 눈동자와 장난기 어린 얼굴표정을 보니 아이들은 어디에서나 똑 같은가 보다. 교실을 둘러보았다. 시멘트 바닥에 칠판도 벽에 고정된 돌 칠판이고, 그 외 어떠한 학습도구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러나 수업이 어디서 이루어지건 그와는 상관없이 가르치는 선생이나 배우는 학생들의 모습이 너무도 진지하고 열성적이어서 어떤 사명감마저 느껴졌다. 그들을 얽매고 있는 가난과 무지, 온갖 질곡을 깨뜨리고 희망찬 미래를 약속 받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교육뿐이라는 걸 그들도 알고 있지 않을까? 수업을 받고 있는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에서 새로운 미래를 여는 희망을 엿볼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지난 3년 동안 제이티에스가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며 씨를 뿌리고, 가꾸어 온 노력의 결과라 생각하니 새삼 스님과 우리 회원들의 크나큰 뜻과 열정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내 안에 있는 부처

나는 얼마 되지 않는 동안 인도에 머물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

우선 그들의 삶과 행동을 내(우리) 기준으로 봐서는 안되겠다는 점이다. 그렇게 될 경우 그들을 낮게 보거나, 그들의 생활방식을 깔보는 잘못된 우월감에 빠질 우려가 있다. 나는 하우라역에서 비를 맞으며 짐을 나를 때, 처음에는 비를 덜 맞으려고 뛰기도 하고 바지에 흙탕물이 튀지 않게 바지를 걷어올리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그게 부질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히려 비를 흠뻑 맞고 바지와 신발이 엉망으로 더러워져도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니 마음이 편해지고 일도 힘들지 않게 되었다. 이는 분명 체념이나 어쩔 수 없어 적응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다. 공항에서의 불편함이나 열차 타면서 가졌던 불만도 이제 와서 생각하면 모든 잣대를 그들이 아닌 나에게 두기 때문에 생기는 착각이었던 것이다. 더구나 그들과 함께 일을 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생각보다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연민(자비심)과 순수한 사명감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몸을 아끼지 않는 희생정신이다. 날씨가 덥다고, 몸이 좀 아프다고 하던 일을 중단하거나 추진력이 약해지면 하고자 하는 일도 안될 뿐 아니라 자기발전(수행)도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곳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번듯한 학교 건물도, 학습교재도, 옆 동네로 가기 위한 탈 것도 없었다. 마을 사람들의 의식이나 협조도 없고 정부의 지원도 없다. 토양도 척박하고, 기후도 농사짓기에 알맞지 않아 그들이 당장 잘 살 것 같지도 않다. 그렇다고 포기할 것인가? 아니다. 그럴수록 내 한 몸 아끼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겨내는 그런 사람이 더욱 필요한 게 아닐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본다. 전정각산 유영굴에서, 보드가야의 마하보디 대탑에서 부처님의 발자취를 더듬으며 다시 한번 다짐한다. 부처님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겠다고.

글쓴이 : 윤기희 ('98년 7월 5일 ~ 12일 수자타아카데미 방문)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둥게스와리 소식

현재 결핵환자 7명과 장기환자 1명에게 영양식과 약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불가촉천민 마을인 두르가푸르와 자그디스푸르 두 마을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치료를 하고 있으며 그 외 마을의 응급환자, 임산부 등 기타 환자들도 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병원운영은 비가 많이 오는 날씨 때문에 매일 오전 7:30~8:30, 오후 5:00~6:00. 두 차례 실시하고 있으며 하루평균 25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우기에 유행하는 질병으로는 눈병, 피부병, 어린이 발열이 많으며 말라리아 환자도 있다. 이후 계획으로는 매월 2회 마을마다 방문하여 교육과 치료를 겸하는 '메디컬 캠프'를 실시할 계획이다.

실시과목

어린이 메디컬 캠프 : 중이염, 백내장, 야맹증, 소아마비 등
마을 메디컬 캠프 : 부인병, 결핵, 급성질환 등
기타질병(콜레라, 말라리아)과 유행성 질병에 대한 예방과 위생교육에 대한 캠프를 실시할 예정이다.

1. 현재 Pre-school(유치원)은 수자타아카데미가 직접 운영하는 곳과 간접 운영하는 곳과 간접운영하는 곳으로 나누어진다. 직영은 수자타아카데미, 만코시힐, 아자트비가로서 마을 유치원 선생님과 학교에서 파견된 두명에서 네명의 상급생들이 보조교사로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간영인 '방갈비가'에는 교사 2명에 아동 수가 약 40명, '바가히'에는 교사 2명에 아동 수가 약 40명 정도이다. 모라탈은 교사 5명에 아동 수가 약 80명이고 '가왈비가'는 교사 3명에 아동 수가 약 100명이다. '빠레와'는 교사 5명에 아동 수 약 70명 정도가 된다. 그 중 방갈비가는 현재 수자타아카데미와 거리도 가깝고 아이들 수가 적은데, 부녀회가 없고 교사들도 월급문제로 약간의 말썽을 빚고 있어서 직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논중이다.

간접으로 운영하는 마을 유치원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이 '빠레와 유치원'인데 모든 마을 유치원을 책임지고 있는 쁘리양카의 집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얼마 전 부녀회에서 처마 밑과 단칸방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안쓰럽다며 지금 빠레와에서 결혼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아이들 유치원 건물로 사용하는게 어떠냐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다.

아동수는 한국처럼 정확한 통계를 내기가 어렵다. 아이들은 이곳의 유치원에 나오기도 하고 근처의 정부학교에 다니기도 한다. 또

농번기에는 집안일을 거드느라 학교를 빠지는 일이 허다하다. 농번기가 아니더라도 아직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학교보다 집과 들에서 아기를 돌보거나 나뭇가지를 줍거나 소를 돌보는 일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 정원수는 늘 유동적이다.

2. 교사들과 리더들은 매주 토요일 10시에서 4시까지 트레이닝을 꼭 받아야 하는데, 요즘 새로운 어린이 노래와 생활예절을 배우느라 애를 먹고 있다. 특히 그들은 율동시간에 굉장히 부끄러워하는데 그들의 긴 팔과 다리가 어설프게 흔들릴 때면 트레이닝 장은 곧 웃음바다로 바뀌기도 한다.

3. 현재 간영유치원 교사에게 100루피의 월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부녀회가 모이지 않는 방갈비가, 모라탈 교사들은 아직 월급을 주지 못했다. 모라탈은 지금 한창 농번기라 바빠서 다음주로 모임이 미루어졌고 방갈비가는 현재 부녀회가 없다. 그래서 닥달을 좀 했더니 요번 소풍 때 교사 두 명이 참석하지 않아서 내심 괘심 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떻게 달래볼까 고심중이다. 내일(8월 8일)이 축제인데 그들의 주머니가 비어있음을 생각하니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다.

할 일이 태산같다. 다음주부터는 유아교육과정에 따른 아동도서도 구입해야 하고 아이들 반편성을 위한 임시 시험준비도 해야 한다. 얼마 전에 개원한 마코시힐 아이들에 대해서 교사들을 모아서 의논도 해봐야하고 점심 먹기 전에 치는 공양종도 만들어야 하고…… 참! 이 아이들에게 가장 큰일이 하나 남아 있다. 아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유아교육과정 커리큘럼 체계를 잡는 일. 이 일만 생각하면 골머리가 아프다. 문명 교육이라는 것이 처음 터전을 잡는 일인만큼 신경을 바짝 써야 한다.

몸보다 마음이 더 바쁘다. 그러나 이곳은 인도다. 법당 앞의 5미터 가량의 벽돌 길을 만드는데도 한 달이 걸렸다. 덜 조급한 마음으로 그러나 몸은 부지런히 놀리면서 그렇게 내일을 맞이하련다. 이런 저런 생각으로 오늘밤도 쉽게 잠들지 못할 것 같다.

" 북녘어린이에게 전달되는 우리들의 정성 "

-라진 · 선봉 현지보도

대표사무소(지사) 설립 후 6월 15일부터 영양품을 생산하여 7월초부터 배분하기 시작하여 7월 25일까지 생산, 배분을 마쳤고, 7월 26일 선거일을 맞아 쉬고 다시 생산할 계획입니다. 선봉에 1인당 3kg씩 17,670kg을 배분(7월11일~7월 18일)하고, 라진에 1인당 3kg씩 15,130kg를 배분(7월 18일~7월 25일)하였습니다. 배분하면서 본 어린이들은 작년에 비하여 상태가 좋았는데 작년에는 피부가 헌 아이가 많아서 약(자약수)을 지원하기도 했는데 올해는 그런 아이가 많지 않았습니다. 영양품은 맛이 좋다고 하는데 4월에 생산하여 배분하였을 때 콩 비린내가 난다고 하여 이번에 콩은 넣지 않았고, 단맛을 조금 더 냈으면 해서 설탕을 5% 더 넣기로 하였습니다. 탁아, 유치원 선생님들은 물에 타서 먹이기도 하는데 일부에서는 떡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라진의 무창 탁아, 유치원만 가지 못하고 다른 곳은 직접 다니면서 배분하였습니다. 하루에 700kg~800kg정도를 생산하는데 이번에는 밤 12시까지 생산한 날도 있고, 밤 작업을 많이 하여 생산하였습니다.

7월 23일 종업원 약 20명, 지배인 등 모두 모여 생산총화를 하였는데 생산효율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토론을 하였습니다. 생산과정은 변성기에서 입쌀, 옥수수쌀을 익혀, 과자처럼 나오는 것을 가루 내어 설탕, 우유가루를 섞습니다. 8월 배분부터는 가로 30cm, 세로 60cm되는 비닐에 3kg씩 포장하게 되어 있는데, 변성이 잘 될 경우에는 부피가 아주 커집니다. 현재까지는 50kg정도 되는 포장(안팎 2중으로 된 포장)에 배분을 해 주었는데, 포장 푸대가 회수되지 않아서 3kg정도 되는 작은 포장으로 나누어주고, 이동하는 푸대자루를 제작하여 바로바로 회수해 오도록 할 예정입니다.

선봉에 있는 우암목장에서는 젖소를 400두 가지고 있고 노동자가 380명, 시민이 2,000명 정도 되는데 우유가루(분유)를 판매하지 못하여 어렵다는 요청이 들어와 우리가 필요한 우유가루를 사고 그 대금을 물품(식량이나 필요한 물건들)으로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동안 종업원들 로임도 못 주어 옷, 신발 등 필요한 것들이 많다고 첫 달만 현금으로 달라고 하여 2톤 값(32,000위안)을 현금으로 주고 1톤 값(16,000위안)을 1톤 트럭 판매한 대금($2,000)으로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료가 필요한데 농사재료라서 시기를 놓치면 안되기 때문에 7월 14일 비료 20톤과 비닐포장 접착기 2대를 구입해서 보내주었습니다.

우리 숙소 앞에는 텃밭이 있는데 채소류 반찬거리는 텃밭에서 많이 해결합니다. 중국에서 옷이나 먹을 것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고기류 등은 몰래 가져가거나 눈감아 주는 식으로 들여가고 있습니다. 식사 때가 되면 손님이 많은데, 주로 라진 관리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도 간염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상 나무 젓가락을 이용해서 나누어 먹는답니다. 못 먹어서 생기는 질병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도 우리와 같이 빨리 건강해 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갑니다. 아직 공장 돌아가는 것이 미흡하나 공장 사람들도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선생님,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니 더욱 열심히 해야지 하는 각오를 합니다.

* JTS회원과 결연한 탁아소 아이들과 함께

북녘어린이 결연사업의 평가와 향후 전망

이화승(한국JTS 사무국장)

몇 년간 계속된 자연재해는 가뜩이나 취약한 북한의 식량사정을 최악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현재까지 굶주림과 질병으로 최소 300만 명의 북한주민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국제사회나 남한 정부 차원의 대량 식량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사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식량조차 부족한 북한의 현재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식량배급에 관한 우선 순위가 생길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실제로 아사에 직면한 많은 수의 북한 주민들, 특히 어린이와 노인, 여성들은 식량배급의 우선 순위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실재 식량이 시급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빠르고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은 북한동포돕기운동을 하고 있는 많은 단체의 고민이었다. JTS도 역시 그런 고민을 하던 중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되어 현지에서 직접 구호활동이 가능한 라진·선봉시에서부터 구호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북녘 어린이 결연사업"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97년 11월 미국JTS와 라진, 선봉시 행정경제위원회는 104개 탁아소와 유치원의 11,400여명의 어린이에게 영양식품과 의약품을 무상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JTS의 "북녘어린이 결연사업"은 참여하는 개인과 단체가 지원대상을 직접 선택할 수 있고, 지원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되며, 지원결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지원방식(모금된 식량과 물품을 북한에 전달, 북한당국에서 분배를 담당하는 방식)과는 분명한 차별성이 있다. 97년 12월부터 라진, 선봉지역에 대한 결연사업이 시작되자 국내외 많은 개인과 단체에서 결연사업에 동참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90%정도 결연이 완료된 상황이다.

"북녘어린이 결연사업"은 국내 북한동포돕기운동의 확산, 여론형성에도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초기에는 JTS 자체 홍보를 통해 결연자를 모집하였으나 북녘어린이들의 비참한 생활상이 알려지면서 결연에 참가했던 개인과 단체의 일부가 결연사업과 북한지원의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단(?)으로써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으며, 일부 단체의 경우 북한동포돕기를 중요한 사업으로 선정하고 독자적으로 회원을 확대시키고, 북한동포돕기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의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굶주리고 있는 북한동포를 살리자는 순수한 마음에서,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무조건 도와주고자 시작했던 "북녘어린이 결연사업"은 지금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처음에는 어떤 목적이 있지 않나 의심했던 북한당국도 장기간 조건 없는 지원이 계속되자 신뢰감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 5월 22일 "미국 뉴욕제이티에스 라진, 선봉 상주대표사무소" 설립을 북한당국이 정식 인준하게 되었다. 이는 민간구호기구의 현지 지사설립과 파견인력의 현지 상주를 북한당국이 최초로 공식 승인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그 동안 라진, 선봉지역에 물품을 보낼 경우 중국이나 미국을 통해야만 가능했지만 현지에 대표사무소가 개소됨에 따라 제3국을 통하지 않고 부산항에서 라진항으로 직접 물품을 보내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현지 사무소를 통해 지원된 물품의 사용여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모니터링도 가능하게 되었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라진, 선봉지역 유치원과 탁아소에 대한 결연사업은 약 90%가량이 완료된 상황이다. 그렇치만 북녘땅에서 배고품과 질병에 고통받고 있는 동포를 돕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북녘어린이 결연사업"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현재는 라진, 선봉지역의 유치원과 탁아소를 지원하고 있지만 점차 다른 지역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원대상도 유치원과 탁아소의 어린이로 한정하지 않고 인민학교 등으로 확대시키는 한편, 지원물품도 의약품, 어린이용품, 학용품, 일상생활용품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물론 계획한 모든 것이 일시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 라진, 선봉지역을 거점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

첫 번째는 북한주민들을 살리고자 하는 여론이 국내와 국외에서 광범위하게 형성되어야 한다. 우선은 당장 필요한 식량을 북한에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며, 자연재해와 몇 년간에 걸친 식량난으로 붕괴된 농업기반을 복구하는 개발구호도 동시에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인도주의의 입각한 민간구호기관인 JTS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려 북한과의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주민들이 겪고 있는 처참한 상황들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뜻 있는 단체와 사람들이 돕기운동에 나섰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한 북한당국에서 자신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 북한지원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런 연유로 북한에 지원된 식량과 물품이 불순한 목적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등의 구구한 추측이 나돌기도 했다. 하지만 오랜 세월 폐쇄사회를 유지해 온 북한이 일시에 달라질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죽어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 북한동포돕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미국 뉴욕 제이티에스 라진, 선봉 상주대표사무소"가 설립될 수 있었던 것은 조건을 달지 않은 우리의 지원방식을 북한 당국이 신뢰한 것이다. 우리는 이 상주대표사무소를 통해 지원상황과 북한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 이외에도 북한지원사업에 있어 많은 난관들이 남아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통일을 생각한다면 남쪽의 아이든 북쪽의 아이든 모두가 우리 민족의 장래라는 말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조건 없는 인도적 교류와 지원이 라진, 선봉지역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으로 확대될 때 남녘과 북녘의 장벽을 녹여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JTS의 독자적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필자는 JTS의 역할은 동포를 돕고자하는 순수한 마음을 북한에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다. "북녘어린이 결연사업"이 결연에 동참했던 개인과 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처럼 사회 각 부문에서 북한동포돕기 분위기가 확산될 때만이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을 해결될 수 있고, 아울러 남북이 진정 하나될 수 있는 통일의 밝은 미래도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북녘 어린이 결연사업』"과 관련하여 JTS에 바라는 글

천준호 (청년정보문화센타 조직부장)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98년 춘궁기의 북한의 식량사정은 최악이었다. '신속한 외부의 식량지원이 절실하다'라는 메시지가 끊이지 않는 긴급한 상황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IMF라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동포돕기 운동이 지속될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98년 상반기 JTS가 제안 한 「북녘어린이 결연사업」은 많은 민간단체와 시민들의 참가와 호응속에서 진행되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여기엔 그동안의 북한동포돕기운동과 차별되는 「결연사업」이 갖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북녘동포돕기의 대상이 구체적이고 지원방법이 투명하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자매결연」이라는 약속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참가자들의 책임성 있는 지속적인 활동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는 점이고,
세 번째는 자매결연 대상에 대한 구체적 정보와 서신왕래 등의 교류를 포괄하는 후속활동에 강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듯 JTS의 「북녘어린이 결연사업」은 98년 북한동포돕기운동에 요구되었던 새로운 동기유발과 유지, 장기적인 비젼을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97년 말을 기점으로 소강상태로 접어든 많은 민간단체의 북녘동포돕기활동이 재개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필자가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청년정보문화센타도 「북녘어린이 결연사업」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청년정보문화센타의 경우 올해 2월부터 결연사업의 후원회원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불과 2개월만에 200여명의 후원회원이 모집되었고, 회원들은 1년 또는 6개월분의 후원금을 일시불로 송금하거나 자동이체를 통해 매월 납부하고 있다. 센타에서는 회원들에게 2개월에 한번 소식지를 발송하여 라진·선봉에서의 JTS 활동 소식이나 북한 식량난의 실태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6월말부터는 청년정보문화센타의 일산주거지 모임과 함께 매주 토요일 일산호수공원에서 북녘어린이 돕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6개월의 활동을 작년의 북한 동포 돕기 활동과 비교해 보면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심화된 것이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왜 북한동포돕기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는지를 돌아보자.

우선은 우리의 형제, 이웃의 굶주림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더 나아가서는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사라져 가는 한 세대를 구해야 한다는 꾸밈없는 마음이 초발심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북한동포돕기 운동이 남북의 신뢰 구축과 민족의 화해로 이어지기

를 기대하고 있으며, 더불어 북한이 스스로 식량을 자급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북녘어린이 결연사업」을 점검해보고, JTS에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결연사업」이 보다 지속적으로 유지·확대되어가기 위해서는 후속활동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후속활동의 핵심은 결연자 상호간의 정보 교류와 「관계맺음」이다. 후원자들은 이제 어느 유치원·탁아소에 지원에 되고 있는지를 넘어 내가 지원하는 유치원·탁아소 아이들의 건강상태가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 출석률은 어떤지,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혹 아이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기를 바란다. 적어도 분배과정에서 발생한 에피소드라도 전해질 수 있었으면 한다. 소식이라도 전해 들어야 애정이 생기고, 애정이 생겨야 동기가 발생하고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남북으로 떨어져 있는 결연자 상호간에 보다 구체적인 '관계'가 만들어져야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북녘어린이 결연사업」이 남북한 민간교류의 모범으로까지 발전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두번째, 「결연사업」에 참가하는 다양한 단체와 개인간의 네트워크의 형성이 필요하다. 각 단체의 활동 경험이 교류되고 북한동포돕기 운동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며 민족화해 운동으로 나아가기 위한 주장을 모을 수도 있었으면 한다. 1만여명이 매달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며 후원하는 사업이 우리사회에 얼마나 있을까. 그만큼 「결연사업」이 명분과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동의의 폭이 넓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보다 자신감을 갖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지 않겠나?

어떠한 이해관계 없이 민족화해의 관점에서 북녘동포를 돕겠다고 모인 이 힘이 북한 식량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가슴이 얼어버린 우리들에게

-"북녘어린이 결연사업"에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며

윤여진 (경실련 청년회)

심난한 며칠을 보냈다.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만나는 수재민 속에 행여 내가 아는 사람이라도 있을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보낸 며칠이었던 것 같다. 다행히(?) 내가 아는 사람들은 무사하다는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무엇이 하늘을 노하게 만들었을까? 아니 하늘이 미쳐버린 걸까?

도대체 우리나라의 행정부에서는 수방대책이라는 것을 세우는 것인가. 항상 인재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이 뻔뻔하기조차 하다. 그리고 낮은 지대에 사는 사람들, 하천부근에 사는 사람들도 정부의 대책이 부실하면 항상 조심하고 자력적인 수방대책을 세우고 살았어야지…….

마음은 안타깝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단 나를 비롯한 내 주변에서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ARS를 통해 작은 성금을 보내고, 회사에서 걷는 수재의연금을 내는 것이 전부였다. 너무도 여러번 경험한 일이지만 나의 일이 아니기에 매스컴이 조용해 지는 시점부터 나는 잊고 지낼 것이다.

"북녘어린이 결연사업"에 대한 글을 부탁받은 후 더이상 미루 수 없는 시점까지 와서야 책상 앞에 앉았다. 과연 지금 "북녘어린이 결연사업"이 많은 이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을까? IMF 때문에, 더욱이 수재로 인해 이 땅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마치 너무도 많은 이들에 대한 관심 때문에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북한의 어린이들에게까지 신경을 쓸 수 없다는 상황속으로 몰고간다. 정작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무리속에 있다는 것으로 나를 묻어버리고, 나 또한 그 안에서 안주(?)하고 있음을 새삼 느낀다. 더욱이 북한 어린이에 대한 세인의 관심은 내 발등의 불 때문에 덮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그들을 돕자는 결연사업은 어쩌면 무리한 관심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다.

무리한 관심!

그러나 내가 나 이외의 그 무엇에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사는지 돌이켜보면 별로 없다는 사실에 놀란다. 그저 잠시 가슴 아파하고 조금의 성의를 표하는, 그리고 잊고 지내는 순서를 어느 누구도 비껴가지 않으니 말이다. 작년에 진행되었던 북한동포돕기운동은 그래서 쉽게 관심에서 멀어졌는지도 모르겠다.

나의 생각과 지향하는 사회상과는 관계없이 지금의 현실은 그저 냉정할 뿐이다. 가슴이 얼어버렸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나를 바로 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를 중심에 놓고 할만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그들의 입장이 되어 본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기적을 바라는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요즘 부쩍 JTS 사람들과 가까이 지낸다. "한일 청년학생포럼"을 계기로 자주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우연히 명동거리에서 열심히 모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들을 만날 수 있었다. 지나는 사람들은 냉담하고, 간혹 함경도가 고향인 사람의 파란 지폐가 모금함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관심.

무엇이 문제일까.

이제까지 우리의 통일운동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 북한의 현실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던 한계, 여러 가지가 머리속을 스치고 지나가지만 아마도 반세기동안의 반공이데올로기가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어디 북한동포문제 뿐일까?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 대해 진정한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북한동포돕기운동을 하여야 하는지 너무도 자명한 일이므로 굳이 부연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그저 바램에만 그치는 문제에 대해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

논리적인 설득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가슴이 얼어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우리 민족이, 그리고 더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공통체가 희망을 품으려고 한다면 여러가지 이해와 입장을 뛰어넘는 진정한 관심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희망이 없기에 자신의 안위만을 최고의 덕목으로 만들어 놓은 부끄러운 현실을 언제까지 지탱해야 하는지…….

그러나 놀랍게도 얼어버린 가슴을 녹이고 희망을 만드는 불을 지피는 일들이 우리의 현실속에서 함께 진행되고 있다.

"나"를 되찾고 "우리"를 되찾기를 원하는 진정한 마음이 큰 횃불이 되었으면 한다.

사실 우리 청년회 회원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내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거리의 시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

현실의 모든 장애와 얼어버린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새로운 기운을 여러 청년단체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만들어 간다면 아마 지금의 걱정은 즐거운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JTS 여러분들의 쉼없는 활동과 믿음에 경의를 표한다.

내가 북녘동포돕기운동을 하는 이유

허영일 (전대협서울동우회 사무국장)

사상 유래 없는 홍수가 남녘땅을 강타하고 있다. 벌써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고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텔레비전에 언뜻언뜻 비치는 복구현장의 모습을 지켜보는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그것은 이번 수해가 비단 자연재해에 의한 것만은 아니라는데 있다. 왜 우리는 아직도 미리미리 재난에 대비하지 못하고 死後藥方文만을 되풀이하는 것인가? 울화통이 치미는 사이, 생각은 북녘땅에까지 미쳤다.

'아! 또다시 북녘땅에 수해가 발생하면 어떻하지, 제대로 복구도 되지 못했을텐데'

나는 86년에 대학에 입학했고, 내 대학시절의 전부를 고스란히 학생운동에 바쳤다. 특히 분단된 민족을 하나로 잇겠다는 '통일운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금단의 영역으로만 인식되어졌던 북한, 그리고 같은 말을 쓰고 같은 피를 나눈 형제들의 진면목을 하나하나 알아 가는 과정은 '통일'만이 우리 민족의 살길이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었다. 또한 분단의 문제를 자신들의 정권유지에 이용하는 군사독재정권에 대해 극도의 불신감을 갖게 되었고, 반통일적 정권에 반대하는 운동에도 열심히 참여하였다. 당시 대학생들의 이러한 헌신적인 '통일운동' 덕분에 국민들의 통일의식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하였다. 몇몇 극소수의 극우적인 사람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북한사람'들을 더 이상 '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같은 민족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대다수의 정치세력과 사회단체들도 '통일'을 말하지 않고서는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동일시 된 것이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북한의 식량난과 홍수피해에 대한 이야기들이 간간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더욱 충격적인 것이었다. 굶어죽은 사람들만도 작게는 수십만 명에서, 많게는 수백만 명에 이른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실상을 알게된 남녘의 많은 사회단체와 자선단체들은 북녘동포돕기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였고 많은 국민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성도 북녘의 식량난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다.

함께 가야할 우리 민족의 반쪽이 굶어죽고 있다니! 이런 청천벽력이 어디 있는가? 학창시절을 '통일'의 열정으로 불태웠던 '전대협'세대들도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

'통일의 한쪽 상대방이 죽는다면 통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또한 우리의 무관심으로 북녘의 동포들이 죽어간다면 먼 훗날 우리들은 그들의 아들, 딸들을 어떻게 제대로 쳐다볼 수 있겠는가? 과거 통일운동에 헌신했던 열정으로 지금은 북녘동포돕기운동을 벌여야 할 때이다.'

이러한 자세로 우리 '전대협'세대들은 북녘동포돕기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아직 성과는 생각보다 적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북녘동포돕기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마지막으로 북녘동포돕기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 그것은 북녘동포돕기운동은 불우이웃돕기 운동이 아니라 통일운동이라는 것이다. 단순히 자신들보다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값싼 동정심에서 출발한다면 북녘동포돕기운동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일회성으로 그치고 말 것이다. 우리들과 통일을 이루고, 함께 민족의 미래를 개척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라는 '통일운동'의 관점을 가질 때라야만 이 운동은 꾸준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생색내기 식 사업보다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전개해야 한다. 이것은 사실 북한사람들의 자존심과도 관계되는 일인데 조용하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만 북한 사람들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세를 가질 때 북녘동포돕기운동은 우리 민족이 통일에 기여하는 의미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신공간에 통일의 빛을

박찬규 (통신회의 조직위원장)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 통신공간을 통일의 광장으로
전 통신인들도 민족통일의 큰길에 나설 때"**

한국은 수백 만대의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되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컴퓨터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상당부분 극복할 수 있는 컴퓨터 통신은 현대인의 필수 사항이고 점점 일상생활화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컴퓨터 통신을 통해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손쉽게 주고받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컴퓨터 통신의 뛰어난 점을 통일을 앞당기는데 활용하고자 지난 97년 하이텔에 통신동우회를 개설하였습니다. 몇 명의 뜻 있는 발기인이 모여 [민족통일정보공동체 백두대간]이라는 이름으로 통신공간에 통일동우회를 최초로 등장시키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통신공간에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북한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는 역할을 할 목적으로 출범한 [백두대간]은 출범 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취지를 실현하고자 꾸준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97년, 일부 회원들이 '금요일 점심한끼 굶기 운동'에 동참한 것을 시작으로 통신인들을 겨레사랑운동에 동참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후 일시적인 운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남북겨레의 상호관심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길을 생각해오다가 다행히도 'JTS'에서 전개하고 있는 「북녘어린이 결연사업」 사업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JTS'에서 소개해 준 '선봉시 홍의분장 유치원'에 지정된 성금을 착오 없이 매월 전달하기 위해 [백두대간]내 모임인 [통일회의]에서는 후원회원 모집에 나서고 있습니다. 통신인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하이텔에 협조요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통신공간이 남북겨레의 하나됨을 위한 소중한 공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JTS'에서 추진하고 있는 나진-선봉 모든 탁아소와 유치원의 자매결연 완료가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나와 우리』를 방문하여

「결연단체탐방 2」에서는 선봉시 적지분장 유치원과 결연하고 있는 「나와 우리」 실무자 김현아씨를 만나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현재 '나와 우리'에서는 선봉시 적지분장 유치원과 결연하고 계신데요,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결연을 시작한지는 '나와 우리'가 올해 4월에 생겼으니까, 5월부터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시작했지요. 저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북한동포돕기 한다고 옷 모아 내고, 개인적으로 한 달에 얼마씩 내고 했었는데, '나와 우리'가 생기면서부터는 회원들이 함께 모아서 내기 시작했지요.

▶ 결연을 하고자 마음을 낸 동기는요?

저희가 여러가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가장 급한 게 북한이잖아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고 "저희가 하는 지원사업 중 일부가 북한지원사업에 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참고로 저희 회원들이 내는 회비는 전부 지원사업으로 쓰인답니다.

▶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어려운 것은 없어요, 무엇을 많이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부터 회원들과 모여서 '이거 좋은 일이니까 한번 해보자' 하면 하고 쉽게 시작해요.

'나와 우리'를 맨 처음 시작을 할 때 기조가 큰 조직을 만들지 말자라는 것이였어요. 어떤 사람이 연두빛이 좋아서 연두빛 단체를 만들었다면, 자주빛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주빛 단체를 만들고 이것도 저것도 안 맞으면 다른 사람은 보라빛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 궁금한 점은 없으세요? 현재 라선 탁아 · 유치원 어린이 결연이 80%가 넘는데, 저희도 고민되는 것이 결연을 하고있는 회원들에게 현지 정보가 참 늦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이 많아요

어쨌든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자존심이 강하고 상처받기 쉬운 나라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의 경로를 다 알면 좋겠지만, 보여주기 싫다면 안 봐도 되지 않나요? 얼마 줘놓고 어떻게 했는지 보여줘 라든지, 정말 줬니? 하고 꼬치꼬치 따져 묻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옳은 방법은 아니겠다 싶어요.

예전의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도 미국원조를 받을 때 이 밀가루는 플로리다의 누가 줬다는 거 알고 받지 않았잖아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언젠가는 그들도 알겠지 하는 희망을 가지고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통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 생각해요.

▶ JTS에 바라고 싶은 점은요?

참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들은 지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고민을 하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런 집중되어서 나가는 고민들이 실천으로 연결되고 그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라선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볼 수 있는 통로를 만들면 좋겠어요. 저희는 회원들에게 그래요. "언젠가는 들어 갈꺼다, 결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안아볼 수 있을 거다." 라는 말을 많이 해요.

꼭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열심히 해 주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어떤 매개체가 나와 우리를 연결하고 있다. 「나와 우리」는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잇은 징검자리가 되고자 한다.

이제 '열린 네트워크 「나와 우리」는 이 모든 것의 경계를 허무는 일'을 하고자 한다.

-나와 우리 창간호에서

이렇게 일했습니다.

⊙ 인도 현지 시찰

지난 7월 5일부터 일주일간 이사장 법륜스님 등 4명의 시찰단이 인도 현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마을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유치원 건립과 병원운영 등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애초 10개 마을에 짓기로 계획했던 유치원은 마을주민들의 참여의사가 높은 방갈비가, 만코시힐, 모라탈, 가왈비가, 바가히, 아자르비 마을부터 우선 짓기로 하고, 나머지 4개 마을은 주민의 참여의사를 확인한 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 인도 결핵약품 전달

시찰단의 인도 현지 방문 때, 실시했던 결핵과 신체장애에 대한 검진 결과 검사를 받은 주민중 20명이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결핵환자로 판명되어, 이들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1인당 완치까지 소요되는 비용은 약10만원(결핵치료제 7만원, 영양제 3만원) 가량이며, 우선 6개월분 약품 30인분을 구입, 인도에 보낼 예정이다.

⊙ 눈앞에 다가온 JTS와 라진 · 선봉 직접 교역

"미국 뉴욕제이티에스 라진, 선봉 상주대표사무소" 개설이 정식 인준됨에 따라 제3국을 통하지 않고 부산항에서 라진항으로 지원물품을 보내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영양식품 생산에 필요한 쌀, 콩, 분유, 설탕, 옥수수에 대한 시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제품이 가격은 비싸지만 질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9월초 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라진항으로 보내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는 곡물뿐만 아니라 학용품, 의약품, 어린이용품 등의 구호물자도 부산항을 통해 북한으로 보낼 예정이다.

⊙ 재일 한국청년연합 결연성금 전달

선봉의 조산탁아소와 결연을 맺고있는 재일 한국청년연합의 김홍수 대표와 한 검치씨가 지난 6월 말 JTS를 직접 방문하여 결연 성금을 전달하였다. 재일 한국청년연합은 일본 내에서 북한동포돕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이며, '북녘어린이 결연사업" 추가 참여와 앞으로의 활동을 논의하기 위해 8월중 JTS를 다시 방문할 예정이다.

⊙ 따르릉, 따르릉 JTS 전화 불통?!

지난 6월 말 MBC '여성시대'에 북한 주민이 연변에 사는 친척들에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북에서 온 편지'가 방송되자 여성시대의 애청자들로부터 전화문의와 후원이 되겠다는 약속이 쇄도하였다. JTS 실무자들 모두는 나도 어렵지만 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후원과 격려를 하시는 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접하면서 살아있는 동포애를 느껴 오랫동안 마음 든든하였다.

라진-선봉 유치원·탁아소 단체결연 현황

98년 7월 말 현재 (총 85개 결연)

유치원 · 탁아소명	결연회원 및 단체	어린이수
라 진		
6.12공장탁아소	부산부부선재회,정수학원 정토어린이화랑단,한마음선원	40명
관곡탁아소	성공회 대학교	94명
라진농장탁아소	서울교대 우리민족함께살기운동	130명
라진철도탁아소	서울공대 청년통일네트워크	128명
룡수농장탁아소	청년정토회	93명
수산사업소탁아소	젊은이의모임	66명
수출피복공장탁아소	대불련부산지부	68명
승리화합련합기업소탁아소	서울대동양사학과	105명
시탁아소	청년정토 통일모임	350명
전기의장품공장탁아소	한문화운동 동대문청년회	50명
제2탁아소	중앙대 총학생회	300명
창진수협탁아소	서울대 21세기연합92학번, 이대총학생회 통일팀한울타리	58명
청평탁아소	전대협동우회 경희대	96명
피복공장탁아소	대구초등학교(김진희)	54명
화력발전탁아소	김옥희	100명
6.12유치원	청년네트워크	40명
6.16화력유치원	익명	24명
남산유치원	전북총련	365명
라진농장유치원	우리민족서로돕기 연세위원회	89명
라진수산유치원	전종덕, 이춘규	78명
룡수농장유치원	성균관대 겨레살리기운동본부	91명
무창농장유치원	서울대사범대 청년통일네트워크	37명
무창림산유치원	엽전자르미	11명
물고기유치원	진보사회를 향한 사회인모임	24명
부포오리목장유치원	영남대 야간강좌 국어국문학과	60명
수출피복유치원	김덕희	22명
승리회학유치원	이화여자대학교	240명
시유치원	전북총련	289명
신해수협유치원	장자공부모임, 젊은고대, 팔딸사청년회	33명
유현농장유치원	재일한국청년연합	90명
유현수협유치원	대구를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25명
지경유치원	뉴욕청년단체협의회	202명
창진수협유치원	길원기획	15명
철도유치원	서울대사범대북한동포돕기모임	135명
초도수협유치원	21세기진보연합중앙	24명
해양수협유치원	나눔의집	20명
후창농장유치원	북녘동포돕기 연세운동본부 보건대학원 환경 95	82명
선 봉		
구룡명탁아소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63명
굴포탁아소	전대협동우회1, 겨레사랑북녘 동포돕기청년운동본부	126명
녀중탁아소	서울대 인문대87계모임	17명
두만강채종탁아소	청년정보문화센타	57명
백학목장탁아소	청년정보문화센타	30명
백학분장탁아소	원불교청년회 남북한살운동본부	31명

유치원 · 탁아소명	결연회원 및 단체	어린이수
부포오리탁아소	김신양	9명
부포탁아소	영남대 청년통일네트워크	148명
사회탁아소	경실련 청년회와서울생활연구회 중계초등학교 6-5	66명
상현탁아소	경희대 총학생회	60명
서포항탁아소	청년정보문화센타	30명
송평탁아소	구로시민센터 계명대 21C 진보학생연합	83명
신회탁아소	연세대경영학과 지음, 푸른하늘을 여는사람들	95명
아동병동탁아소	전통찻집갑사(김진희)	24명
영예군인탁아소	연세대동아리 열음	30명
온실탁아소	김정숙,학고재편집부, 상용산업,온누리어린이집	30명
옷직장탁아소	경희대 한의대 학생회	76명
원료기지탁아소	포럼 2001	20명
읍분장탁아소	장계만회	15명
읍탁아소	정토수련원 나눔의장	180명
적지탁아소	참여연대	64명
제약공장탁아소	서울대병원 소아중환자실, 정토포교원승만회	76명
조산탁아소	재일한국청년연합	98명
직물탁아소	부산정토법당,서울대역사과87	42명
하여평탁아소	서울대	129명
홍의탁아소	청년정보문화센타	85명
1.11유치원	뉴욕금강경독송회	68명
구룡평목장유치원	정토대학생회	50명
굴포담수유치원	한국정보통신센타	24명
굴포분장유치원	자비회	62명
두만강구유치원	서울 시립대 문리대 학생회	114명
두만강채종유치원	경희대사학과 형제	36명
민크목장유치원	경희대사학과 형제	30명
부포분장유치원	세계기술, 청주정토지회	58명
부포오리목장유치원	권수영 영남대야간강좌 국문학과학생회	60명
승평유치원	뉴욕개인회원일동	112명
신회분장유치원	양윤덕,오현수	34명
영예군인유치원	성남법당 신도회,순심여중고 서교초등학교 6-2, 6-3	75명
우암분장유치원	답사모임 산소리, 정토포교원 아니뜻다일요팀	28명
우암수신유치원	숭실대 총학생회	79명
웅상구유치원	만해동문회 예전과기대 청년통일네트워크	71명
웅상분장유치원	맑은세상만들기	47명
원료기지유치원	녹색교통운동	27명
원장분장유치원	서울대 통일문제연구회 핵박, 성산초등학교,시민모임무궤	78명
적지분장유치원	나와우리	39명
청계유치원	대불련부산지부,21C진보학생연합	207명
하여평분장유치원	건국대 이과대	109명
하회분장유치원	신들예	74명

북녘어린이 결연 및 직접지원

◆ 국제구호기구인 제이티에스가 북한의 나진-선봉 지역에 세운 공장에서 영양식을 생산하고 모든 탁아소와 유치원에 직접 배분합니다.

◆ 귀중하는 북녘의 어린이 1명 또는 다수의 어린이를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어린이 1명에게 한달간 영양식을 공급하려면 약 5,000원이 필요합니다.

♠ 북녘어린이 결연이란 무엇인가요?

북한어린이의 영양실조 상태를 극복할 영양식뿐만 아니라 각종질병의 예방과 조기 치료에 사용될 의약품 지원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특구로 지정되어 개방된 나진-선봉 지역의 6개월부터 7세까지 1만여명의 어린이들에 대한 직접 지원활동을 전개합니다.

♠ 영양식이 정말 북녘어린이에게 전달됩니까?

제이티에스가 여러분의 사랑을 담은 영양식을 북한어린이에게 직접 전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안내문을 보내 나진-선봉 지역의 104개 유치원과 탁아소에 대한 지원현황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북한어린이들에게 제공하는 영양식은 제이티에스가 나진-선봉지역에 세운 영양식품 가공공장에서 직접 생산하여 1주일에 한번씩 직접 지원합니다.

♠ 라진-선봉JTS 지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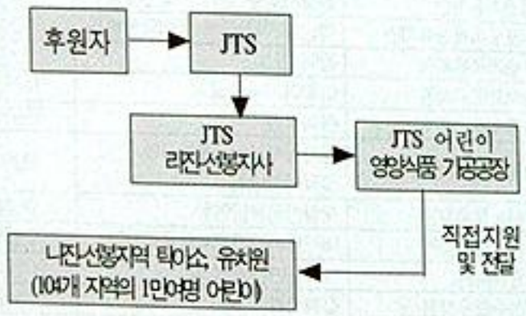
JTS는 구호활동을 위해 라진-선봉 JTS지사를 라진-선봉시에 설치할 것을 합의하고, 4명의 직원을 파견하여 현지에서 공장운영과 구호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라선 JTS영양식품합영회사는?

어린이에게 공급하는 영양식품을 생산하는 "라선JTS 영양식품 합영회사" 는 라진시 안주동에 있는 "라선 물고기 가공공장"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합영회사에서는 곡물, 콩, 분유, 옥수수가루, 비타민, 설탕, 기름, 채소, 과일등을 섞어만든 특수 영양식을 생산하여 유치원, 탁아소의 어린이들에게 직접 배급하고 있습니다.

♠ 보내주신 후원금은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바로 북녘어린를 살리는 결연 후원인이 되어 주십시오.

- 한 단체가 하나의 유치원이나 탁아소를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금은 월 5000원씩 1구좌 이상을 거래하시는 은행에서 통장으로 온라인 송금하시거나 자동이체를 하시면 편리합니다.

문의 및 회원접수
02)5810-581 3672-5045

결연안내 예금주:사)한국제이티에스

- ▶ 국민은행 086-01-0339-246
- ▶ 지로번호 6921361
- ▶ 자동이체시 꼭 전화를 주십시오.

JTS Join Together Society

제이티에스(JTS)는 전 세계의 기아·질병·문맹을 퇴치하기 위해 1991년 인도 캘커타에서 메디칼 캠프(Medical Camp)를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인도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1997년 11월 부터는 라진·선봉 지역의 북녘 어린이를 위한 직접 구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제이티에스의 후원자가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화로 신청하시거나 후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시면 후원자가 되실수 있습니다. 제이티에스의 후원자가 되셔서 이 세상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일에 당신께서 앞장 서 주십시오.

- ◆ 기업의 출연, 개인 및 단체성금 모두가 가능합니다.
- ◆ 한 단체가 하나의 유치원이나 탁아소를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 후원회원으로 등록하시면 제이티에스에서 발행하는 각종 안내책자 및 정기적인 사업보고서를 보내 드립니다.
- ◆ 지원하는 개인 및 단체가 지원 받는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일반후원 안내]

예금주 : (사)한국제이티에스	
지로번호	6921361
국민은행	086-01-0339-254
농협중앙	044-01-094677
상업은행	430-04-119833
외환은행	108-22-03140-0
제일은행	427-10-011141
조흥은행	348-01-111624
하나은행	103-230740-00104
주택은행	484201-01-000585

후원금 접수 ☎ 02)5810-581/3672-0545

북녘어린이 결연 구좌는 26쪽에 있습니다.

후원회원 가입신청서

이름(단체): 생년월일: 년 월 일생

전화(집) (직장)

우편물 받을곳 ☐ 집 ☐ 직장 추천인:

주 소:

컴퓨터 ID:

후원희망 : ☐ 북녘 어린이 결연 ☐ 일반 후원

후원금 매월(원) 후원 어린이수 ( )명

기타 본희에 하실말씀

본인(우리가족/단체)은 제이티에스 후원회원으로 가입합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가족/단체):

◎후원하신 후원금에 대해서는 세금공제 혜택이 있습니다.